

기본소득과

지속가능한 소비

이지은

기본소득 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탐욕은 심리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이를 문명의 심리적 토대로 만들어 버렸다.
— 『탈성장 개념어 사전』(251쪽)

기본소득이 생태적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글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지속가능한 소비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어떠한 녹색 비전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기본소득에 기대하는 생태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에 대해 검토한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기 위해 유용한 개념인 ‘지속가능한 소비 복도들(sustainable consumption corridors)¹⁾’을 소개한다. 이 개념은 지구적 환경의 한계 내에서 ‘좋은 삶’의 길을 찾는 사고의 공간을 열어놓는다.

1. 기본소득의 생태효과: 두 가지 접근²⁾

기본소득이 생태와 지속가능한 삶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 견해가 공존한다. 녹색 기본소득의 비전은 크게 녹색성장 지지자와 느린 성장(slow growth) 혹은 탈성장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소득에 기대하는 역할은 달라진다. 녹색성장 지지자의 경우 주로 탄소세와 탄소배

1) corridor를 ‘복도’로 번역하였다. 일반적으로 바닥과 천장 그리고 양쪽 벽으로 막혀있는 어떤 공간의 긴 통로를 의미한다. 소비복도에 대한 개념은 이후 장에서 설명한다.

2) Howard, Pinto, & Schachtschneider(2019: 111-132) “기본소득의 생태효과”의 일부와 Lee, Lee, & Kim(2020)의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당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탈성장론자의 경우, 경제성장을 계속 추구하면서 탄소가격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고용의 목표를 포기하고 절대 소비를 줄여야 함을 강조한다(Gough, 2017). 따라서 탈성장론자들은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소비사회’에 도전하는 소비행동 변화를 촉진시키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여러 보완정책들이³⁾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Howard et al., 2019).

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한 삶’을 추동할 수 있는가? ‘지속가능한 삶’을 중심에 두고 나면, 기본소득의 생태효과는 불분명하게 된다. 첫 번째 이유는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 연구에서 소비패턴의 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진다. 개인이 지속가능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 시간, 인프라, 문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약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얻거나 반대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혹은 시간제약으로 인해 소비선택이 제한된다면 소비자는 바람직한 소비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특정한 소비패턴을 가진다. 먼저, 이동성, 도시계획, 사회서비스와 같은 인프라의 제약 그리고 물질적 소비를 활용하여 지위와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경쟁적 소비문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지속가능한 소비의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현재의 소비구조가 시장지향적이라는 점, 현재의 범용 화폐general-purpose money는 오늘날 생태적 측면에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바우처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Bohnenberger, 2020).⁴⁾

두 번째 이유는 기본소득 지급이 자원과 에너지의 과잉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측면은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UBS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UBS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과 달리 집합적 소비non-ownership models of utilizing good and services를 통해 생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본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남용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 과잉으로 이어진다면 생태적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Parrique et al., 2019; Bohnenberger, 2020). 또한 기본소득과 지속가능한 소비 사이의 관계는 온실가스 배출이 소득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다. ‘평등-오염 딜레마equity-pollution dilemma’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빈곤가구의 지출 당 소비의 오염강도가 높을수록 누진적 재분배로 인한 소비를 통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질 수 있다(Sager, 2017). 이렇게 기본소득은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도 생태적으로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가능성들은 존재한다. 그 가능성은 유급노동과 소득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단절시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이다. 먼저, 기본소득이 지급됨으로 인해 사람들은 성장중심주의에서 벗어난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Boulanger, 2009; Schachtschneider, 2012). 가령, 보다 생태적이고 정서적인 가치에 더 초점을 둘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자치활동을 추구할 수 있다

3) 먼저, 생산중심적이고 소비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더 겸손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급진적 교육개혁이 제안된다. 둘째, 법적 최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Schor(2005)는 세계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소비량이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논의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여가로 전환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하며, 기본소득은 근로의지와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4) 가령,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보완통화(complementary currency)의 발행을 통해 생태소득(ecological income)을 창출자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바우처를 Bohnenberger(2020)는 변환바우처(shift voucher)로 분류하였다.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변화를 부추기는 것(nudging)을 목적으로 하며, 크게 스포츠바우처, 과일바우처 등과 같은 화폐형식의 바우처와 생태휴가와 같은 비현금 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편적 기본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Lee, Lee, & Kim(2020)에서 참고할 수 있다.

(Fitzpatrick, 2010). 사람들은 더 많은 여가와 적은 소비를 선택할 수도 있다(Goodin, 2001; Johnson & Amsperger, 2011).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지급된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므로 위치재 positional goods⁵⁾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Schachtschneide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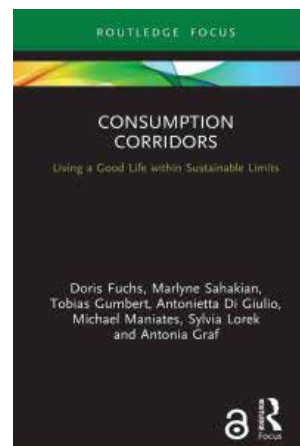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기본소득의 생태효과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논쟁의 핵심은 기본소득이 과연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중심의제에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생태·사회적 한계 내에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은 무엇인가’는 전 인류사에 걸쳐 논의되었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끊임없이 답해야 할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덧붙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태·사회적 한계를 고려하여”, ‘물리적으로 지구환경의 제약을 고려하여’라는 조건이다. 즉,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the sustainable way of life style’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해보는 것이다.

가이 스탠딩(2018)은 사회정의의 5가지 원칙에 ‘생태적 제약 원칙’을 포함시켰다. ‘생태적 제약 원칙’이란 ‘해당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공동체나 사람들이 부담할 생태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이 사회적으로 정의로움’을 의미한다. 사회정의에 ‘생태적 원칙’을 고려하는 경향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생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마치 미키마우스의 두 개의 귀처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태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를 포함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 틀이 필요하다.

생태·사회적 한계를 고려하여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 ‘소비 복도들 consumption corridors’이다. 이 개념은 2021년에 발간된 『소비 복도들: 지속가능한 한계 속에서 좋은 삶을 추구하기 Consumption Corridors: Living a Good Life within Sustainable Limits』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사실 이 개념은 2012년부터 the March Münster 회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좋은 삶, 소비와 정의justice를 둘러싼 수많은 대화의 결과로 형성되었으며, 이 책의 공동저자들이 핵심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⁶⁾ 이 책은 생태·사회적 한계 내에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것을 권하고, 이러한 기회를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 고찰한다. 일곱 명의 학자들은 ‘소비 복도들’



그림출처: <https://www.routledge.com/Consumption-Corridors-Living-a-Good-Life-within-Sustainable-Limits/Fuchs-Sahakian-Gumbert-Giulio-Maniates-Lorek-Graf/p/book/9780367748722>

5) 위치재라 함은 최고급 스포츠카, 매우 비싼 주택과 같이 근본적으로 ‘희소성’을 특징으로 한다. 가령 모든 사람이 페라리를 가질 수 없으며, 만약 모든 사람들이 페라리를 가진다면 더 이상 페라리의 가치는 무화되고 만다. 위치재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며 상대적 소득에 의해 좌우된다. 문제는 성장이 위치재에 대한 접근을 더 어렵게 하고 지위경쟁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치재는 ‘성장의 사회적 한계’를 의미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탈성장 개념어 사전』(pp.247-2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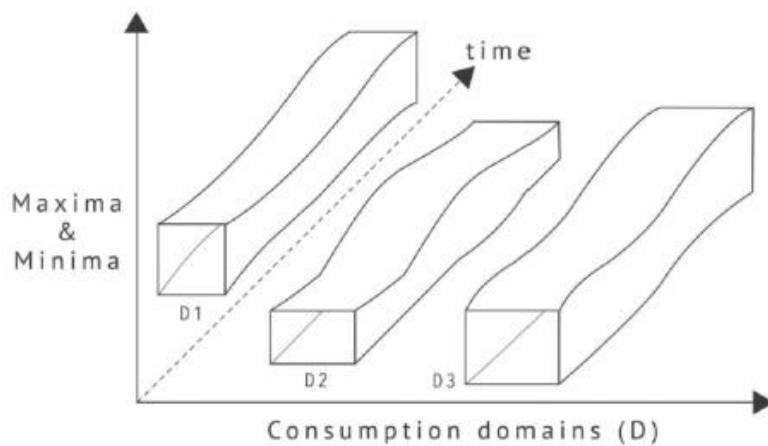
6) <https://www.uni-muenster.de/Fuchs/en/forschung/projekte/konsumkoridore.html>

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소비 복도들’은 시민의 참여와 속의 민주주의를 통해 가
 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간략하게 주요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소비 복도들’란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한의 소비수준’과 다른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해치지 않기 위해 넘어서는 안 되는 ‘최대
 한의 소비수준’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이 공간은 선택의 자유로 남겨지며, 이 공간 내에서 ‘지속가능한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Di Giulio & Fuchs, 2014). ‘소비 복도들’은 ‘무엇이 좋은 삶인가’를 질문하고 지
 금과는 다른 방식의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개념적 공간을 열어놓는다. 압축적으로 말하면, 책임감
 없는 자유에 대한 신화, 기술혁신에 대한 신화, 시장중심적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신화, 소비자 주권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신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틀을 제공한다.

‘소비 복도들’은 소비의 최소와 최대 사이의 공간에서 좋은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개인의 웰빙에
 대해 다시 사고하기를 요청한다. 최소수준의 소비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삶을 위한 기초가 된다. 이때,
 모든 사람이 정확히 같은 양과 질의 자원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좋은 삶
 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사회적으로 정의된 최소한의 소비수준에 대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사람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필요
 한 기본적인 필요(조건)는 무엇인가’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집합적 책임과 연관된다.
 이러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에는 보편적 기본소득UBI과 보편적 기본서비
 스UBS 등이 있다.

<그림1> 소비 복도들



출처: Fuchs et al.(2021: 37)

다음으로, 최대 수준의 소비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좋은 삶을 추구하는 데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의 범위로 제한된다. 이것은 소비자 개인의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에서 벗어나, 한
 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인류의 번영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사고해 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인류’라는 개념은 지역단위의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으로 형성된, 시·공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수많
 은 ‘소비 복도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림1> 참조). 예로는 온실가스 배출총량 규제와 같은
 에너지 소비 제한 있으며, 주거 면적의 제약 등을 들 수 있다(Fuchs, Sahakian, Gumbert, Di Giulio,

Maniates, Lorek, & Graf, 2021: 40-43).

<그림1>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소비 복도들’ 개념은 3가지 축으로 형성된다. 첫째, 좋은 삶을 위한 기초가 되는 최소수준의 소비, 둘째, 다른 사람의 좋은 삶을 해치지 않는 범위까지의 최대수준의 소비이다. 두 가지 제한 내에 속하는 공간은 ‘지속가능한 소비 복도들’의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지속가능한 소비 복도들’의 면적은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최소수준과 최대수준의 소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정의하고 평가내리는 성찰적인 숙의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개념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복도들의 영역을 정치적으로 합의해낼 수 있다. 이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급박한 위기의식이나 도덕적인 명목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좋은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함께 정의 내려 보자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가능한 소비 복도들’의 영역을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소비제한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내린 결정의 생태·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 일련의 과정은 어떠한 ‘당위’나 ‘수동적 수단’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출해 낸 ‘의도적 제한’이며, ‘시민의 불복종’, ‘자발적 단순성(voluntary simplicity)⁷⁾을 실천하려는 행위를 수반한다.

3. 논의

‘소비 복도들’ 개념의 장점은 좋은 삶과 지속가능한 소비를 강력하게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최소한의 소비와 최대한의 소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좋은 삶이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여 논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또한 이를 설계하는 주체의 범위는 전체주의적이거나 추상적 개인을 상정하지 않으며 시공간 속에 놓인 상호의존적 개인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합리적인 ‘소비 복도들’을 도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소비 복도’를 공동체 단위, 지역사회 단위, 국가 단위, 초국적 단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태·사회적 한계 속에서 웰빙을 위한 최소한의 삶의 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가령,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논의할 수 있고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 교육에 대한 급진적 개혁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태·사회적 한계 내에서 좋은 삶을 위한 필수조건에 깨끗한 자연 환경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깨끗한 공기와 녹지에 대한 접근,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필수조건을 합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제한하는 무절제한 자원의 사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삶의 비

7) 탈성장론자들에 따르면 “넓은 의미에서 자발적 단순성은 의식적으로 낭비와 자원집약적인 소비를 최소화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점차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비물질적인 만족과 의미를 찾는 데 사용함으로써, ‘좋은 삶’을 다시 상상하는 것이다”(달리사 외, 2018: 240).

전과 사회에 대한 구상 속에 논의되어야 한다. 한계 속에서 좋은 삶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 웰빙의 측정에 생태적 측면을 포함시켜 개선하는 것, 문화적 측면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적게 소비하면서도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서는 시간과 정보,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것 속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 복도들’ 개념이 이러한 대화를 시작하기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

- 가이 스탠딩. (2018).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효상 역. 파주: 창비.
- 자코모 달리사, 페데리코 데마리아, 요르고스 칼리스. (2018). 『탈성장 개념어 사전』. 강이현 역. 그물코.
- Bohnenberger, K. (2020). “Money, Vouchers, Public Infrastructures? A Framework for Sustainable Welfare Benefits”. *Sustainability* 12(2), 596.
- Boulanger, P. (2009). Basic Income and Sustainable Consumption Strategies. *Basic Income Studies* 4(2).
- Di Giulio, A. and Fuchs, D. (2014). “Sustainable Consumption Corridors: Concept, Objections, and Responses”. *GAIA* 23(1): 184–192.
- Fitzpatrick, T. (2010). Basic Income, Post-productivism and Liberalism. *BasicIncome Studies* 4(2).
- Fuchs, D., Sahakian, M., Gumbert, T., Di Giulio, A., Maniates, M., Lorek, S., & Graf, A. (2021). *Consumption Corridors: Living a Good Life within Sustainable Limits*. London: Routledge.
- Goodin, R. E. (2001). “Work and Welfare: Towards a Post-productivist WelfareRegim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1), 13–39.
- Gough, I. (2017). *Heat, Greed and Human Need*. Cheltenham, UK: Edward Elgar.
- Howard, M., Pinto, J. & Schachtschneider, U. (2019). “Ecological Effects of Basic Income”. Torry, M. (Ed.),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pp. 111-132). Cham: Palgrave MacMillan.
- Johnson, W. A., & Arnsperger, C. (2011). “The Guaranteed Income as an Equal-opportunity Tool in the Transition toward Sustainability”. In A. Gosseries & Y. Vanderborght (Eds.), *Arguing about Justice*(pp. 61–70). Louvain: Presses Universitaires de Louvain.
- Lee, S. S. Y., Lee, J. E., & Kim, K. S. (2020). “Evaluating Basic Income, Basic Service, and Basic Voucher for Social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12(20), 8348.
- Parrique, T., Barth, J., Briens, F., Kuokkanen, A., & Spangenberg, J. (2019). “Decoupling Debunked: Evidence and Arguments against Green Growth as a Sole Strategy for Sustainability”.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Brussels, Belgium.
- Sager, L. (2017). “Income Inequality and Carbon Consumption: Evidence from Environmental Engel Curves”.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Working Paper No. 385).
- Schachtschneider, U. (2012). “Ecological Basic Income: An Entry is Possible”. A paper presented at the BIEN Congress in Munich in 2012.
- Schor, J. B. (2005). “Sustainable Consumption and Worktime Reduc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9(1–2), 37–50.